

인·물·소·개

포천의 자랑이자 보물

박재환 목사
승리전원교회



32도의 폭염 속에도 아랑곳 않고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신 원장님의 모습! 악수로 내민 손을 반갑게 응대하며 따라 들어간 집무실에는, 어느 곳과 비슷하듯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도서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런데 한쪽 모퉁이에 땅을 파고 아자수 한 그루를 심어 놓은 모습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신선함을 자아냈다.

원장님, 목사님, 대표이사님 어느 것 하나 뒤로 할 수 없는 호칭으로 승리 전원교회, 승리 수양관, 승리 병원까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일임하고 있다. 전원 속 이 아름다운 경관은 돌 하나까지도 손수 옮기고 만든 원장님의 작품으로, 가족과 함께 자연을 벗삼아 쉬면서 하나씩

깨 예배하는 교회이면서 수양할 수 있는 자연 공간이다.

친환경 무농약으로 친히 기른 채소와 열매로 많은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천리향 만주(시세로 5천 만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원예를 가르치고 아론 재배 등으로 지역농가에 도움이 되고자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1만6천여평의 이곳에는 교회와 숙소, 식당, 작은 연못, 병원시설로 입원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20개의 숙소 및 개별 샤워실, 화장실 등 다양하게 갖춰져 있으며, 전문의와 조무사 6명, 물리치료사, 대체의학사, 영양사, 조리사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자녀가 있어서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소외된 분들, 최첨단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병을 얻어 낫기 힘든 환자들, 또는 암 환자들.....

박재환 목사는 말한다. 나도 늙고 병들어 육체가 나고 괴로워할 때 누가 나를 돌봐줄까 하는 생각에, 할머니들이 밤에 몹시 아플 때 병원으로 입고 뒀 수 없기에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승리 병원을 개원했다고 한다. 강원도 흥천 출신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중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로 공부를 하였기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49명의 청년들에게 대학을 보내 주었고(그들이 지금도

자주 찾아온다) 지금도 지역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추천을 받고 있다한다.

10여년 전 자신도 간암 4기였으며, 맹인 1급으로 3년 6개월 동안 점자공부를 하며 살면서 40일 금식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기에 거쳐 받았으니 나도 거쳐 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변인들을 돌보며 나눠주며 살아가고 있다. 원예, 만리향, 아론, 치차 등 천에 사업으로 적잖은 수입을 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곳, 수많은 무료 봉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손 내밀지 않는 원장님의 모습, 알리지 않고 모르게 하는 게 봉사이니 더는 알리지 말라 달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 다시 한 번 숙연해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을 실천함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당신이 좋은 옷 입고 나갈 때 부끄럽고 다른 사람을 좋은 옷 입혀 내보낼 때 보람을 느낀다고... 어느 봉사단체의, 일러진 후 찬조속 퇴색되어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봉사가 무엇이며, 헌신이란 무엇인가 본을 받아야 하기에 포천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포천의 자랑이며 보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산 증인을 소개해 본다. 이미지 주부명예기자단 신복면지부장 jlee67@naver.com

오쿠다히데오-GIRL을 읽고

단편소설로 되어 있는 길에서는 남성우월중심사회에 있는 시대에서 보수적이고 여자를 우습게 아는 남자를 깔끔하게 짓밟아준 듯한 책이었다.

히로에서 보여준 다케다세이코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이 날 본받게 해주지 않았나하고도 생각했다. 다케다세이코는 부동산회에서 입사한지 14년째를 맞이한 해 30대의 젊은 나이에 과장자리로 즉위하였지만 여자라는 이유에서 이미지계장은 세이코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성한다.

나는 여기서 아직까지 우리의 모든 사회가 남성우월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장이 되어도 자기의 일과 명으로 승부하는 세이코를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인생관을 보여주거나 현대인의 감정처리에 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 준 것 같아서 내 마음 속까지 후련해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도 커서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내 일에 프로인 그런 'GIRL'이 되어야겠다.



김연수
학생명예기자·동남중 3년

세이코는 프로젝트 일과 회사의 일을 이미에게 맡겨 모두 의견을 채용하였지만 이미는 그런 세이코를 비웃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신의 과장인 세이코를 끈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세이코는 일에 열중하고 자기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자라서 남편인 히로키 사이에서도 아직 아이가 없었다. 하루는 세이코가 이미에게 내기를 하자고 한다.



동전을 던져서 진 사람은 사표를 내지고 제안한 것이었다. 놀란 이미가 주춤해서 안한다고 하자 세이코는 겁쟁이라 하며 "여자가랑 일하기 싫으면 스모 협회나 가"라고 한다. 이미는 결국 자기자신을 뉘우치고 반

목회단상

인간의 가치

사람만큼 시간이 걸리고 공이 드는 동물은 없다. 혼자서 걷는데도 1년이 걸린다. 거기에 비하여 기린이나 얼룩말은 태어난 지 두시간이면 시속1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한다. 참 부럽다. 하기가 모태에서 떨어져 두 시간된 아기가 시속10km이 상으로 달린다고 하면 인간의 권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권위(權威)란 속성(速成)보다는 힘을 들여야 주어진다.

성인(成人)이란 문자 그대로 사람답게 되는 것인데 그 때까지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은 엄청납니다. 요즘 사회 일각의 일어나는 행태(行態)를 보면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본다. 소위 이합집산(離合集散)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 저들이 만세를 부르며 차려낸 화합의 손이 언제쯤이라고 사대질을 하고 격양된 소리를 지를까 한편 두려움이 앞선다.

성숙의 삶이 되는데는 많은 인고(忍苦)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한 생명을 잉태하고 280일 간을 몸 속에서 키운다. 태어난 뒤에도 1년간은 잠시도 눈을 떼 수가 없다 그 후 20년 혼자서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많은 훈련을 쌓아야 한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적응의 노력도 더 들게 되어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희생의 분량과 정비례한다. 수많은 희생을 통하여 희생의 보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은퇴한 노인들이 교통 정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봉사 등 자원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움이상 존경스럽다.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면에서 사회를 위하여 얼마큼 희생하고 있는가? 그 분량이 그대의 인간 가치를 결정한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요한복음 12장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이렇게 공을 쌓아 성인이 된 인간이 동물처럼 밥그릇이나 찾다가 밥그릇을 놓고 물어뜯다가 끝난다면 만물의 영장(靈長)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가? 사람답게 살다가 죽는 것은 분명히 먹이 이상의 좀 더 고상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희생의 분량과 정비례한다. 수많은 희생을 통하여 희생의 보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은퇴한 노인들이 교통 정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교회봉사 등 자원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움이상 존경스럽다.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면에서 사회를 위하여 얼마큼 희생하고 있는가? 그 분량이 그대의 인간 가치를 결정한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요한복음 12장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⑭ 우리나라 토지제도 변천사

서익석
대성직업기술대 대표이사



남북통일 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 처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토지제도 변천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지제도 변천사에 대한 연구 없이 현재 남북의 토지제도를 비교하여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토지제도 정립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 따른다. 따라서 먼저 과거의 토지제도에서 선조들의 토지에 대한 시각 및 그 변천 과정을 파악하고, 토지제도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아보려 한다.

고려 시대 이전의 토지제도는 대부분 국유가 원칙으로 전근대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무리가 따른다.

한편 조선조 후기에 다양한 자

본주의적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 주변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먼저 남북 분단 전의 조선 시대와 일제 시대의 토지제도를 개관하고, 남북 분단 시점에 서부터 남북을 비교한다. 그 이유는 토지제도의 정립이 그 시대의 상황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고 나아가 이러한 토지제도 확립의 정도가 그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우선 조선 시대를 통틀어 토지 제도가 어떠한 흐름으로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여 전통적인 토지 소유유를 검증하고 일제 식민 이후 토지 수탈의 역사가 후에 농지개혁과 토지개혁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본다.

▶과거의 토지제도

역사의 변천에 따라 토지의 지배자가 교체되고, 그에 따라 토지 관리 방법도 바뀌었기에 역사 연구에 있어서 토지제도는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흥망성쇠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역사상 토지제도가 형성됨을 잃지 않고 유지되었던 시절이 바로 변형기였다.

역사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의 건국 초기 과거 왕조의 단절과 새로운 왕조의 기반 형성을 위하여 토지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고 이를 통하여 건국 초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려 초기의 전 시과 체계의 정립과 조선 초기의 과전법의 실시가 바로 그 예이다. 그러나 건국 초기의 토지제도가

점차 문란해짐에 따라 국가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이를 개혁하여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면 중국에는 국운이 다하였다.

일제에 의한 강점 전까지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본질은 국유제였다. 단군조선 이래 토지는 국유로서 결국 왕에게 그 소유가 귀속되었다. 물론 어느 왕조 하에서도 토지의 국유제는 명목뿐이었고, 권문세가나 토호가 사실상 토지를 지배하였으나 '왕의 소유'라는 근본 원칙이 달린 적은 없었다.

물론 항상 그 원칙이 확고부동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나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의 소유'라는 대 원칙이 동요될 때 사회 또한 동요되어 백성들은 굶주렸고, 흉년이 들고, 민란이 일어나고 결국 지방 토호들이 득세하여 왕을 권좌에서 밀어냈다.

통일 신라와 고려는 귀족과 장군들이 땅을 탐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다. 토지에 대한 집착은 백성들의 불만을 낳았고 나아가 국가와 권세를 잃게 만들었다.



포천시 농사정보 ⑥

8월 하순에 실시할 농작업

- 1. 벼농사**
▶이삭이 익는 시기에는 물을 2~3cm로 얇게 대거나 물 걸러 대기를 한다.
▶이삭도열병은 이삭 켈 때 비가 자주 올 경우 이삭 목에 병원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한번 걸리면 피해가 크게 되므로 이삭베는 시기를 전후하여 일집무늬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과 동시방제한다.
▶혹명나방은 현재 발생이 많고 성충이 많이 발견되며 부화되어 갓 깨어난 유충 피해가 8월 하순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과 동시방제 한다.
- 2. 밭농사**
▶공, 평공 등 밭작물은 꼬투리가 커 가는 시기이므로 습해가 우려되는 포장엔 배수구를 정비하고

- 3. 채소**
가. 고추
▶고추를 밀릴 때는 건조기에서 55°C 정도의 온도로 48시간 말린 후 하우스 안에서 햇볕에 말려 품질 좋은 마른 고추를 생산하도록 한다.
▶고추밭의 병해충을 방제할 때는 붉은고추를 수확한 후에

약제를 뿌리도록 하고, 항상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소비자가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한다.

나. 무·배추
▶연작재배로 무사마귀병(뿌리혹병)이 해마다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돌려짓기를 하고 예방을 위하여 정식 전에 후론사이드, 후루실파마이드분제(혹나나)를 토양훈화처리하거나, 트레이묘(플러그묘)를 미리카트나 탐실액상수화제 희석액으로 정식소독한다.



이한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전공과장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25차 임원회의

☞ 2007년 9월 20일(목) 오전 12시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22차 정기회의

☞ 2007년 10월 9일(화) 오후 7시

포천신문 자문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지역정론지로 발전하는데 각 전문 분야별로 자문역할 및 자문위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주요사업
- ▶전문분야별로 포천신문 발행에 자문사업.
 - ▶포천신문의 기능과 사업에 대한 연구.
 - ▶포천신문의 취재보도 및 부대사업 지원.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기타 포천신문 발전에 관한 사항.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1차 정기회의

- ▶위원장 양주승
- ▶상임고문 최호열 ▶부위원장 조대행 ▶부위원장 김제동 ▶명예고문 최종규 ▶명예고문 양재창 ▶명예고문 김창중 ▶명예고문 리효종 ▶명예고문 이병업
- ▶명예고문 이동해 ▶고문 김인만 ▶고문 송종채 ▶고문 한희준 ▶총무 안병호 ▶부총무 박운중 ▶감사 윤종성 ▶감사 이희용 ▶경제분과위원장 윤종하
- ▶사회법률분과위원장 강경만 ▶정치분과위원장 윤순옥 ▶교육문화분과위원장 최윤섭 ▶박노현(경제) ▶나근수(경제) ▶조복현(경제) ▶정호열(경제)
- ▶하재인(경제) ▶정순호(법률) ▶김중기(사회) ▶이문환(사회) ▶백한창(사회) ▶이윤우(정치) ▶김성진(정치) ▶이중희(정치) ▶남궁중(정치)
- ▶김정원(정치) ▶김정익(종교) ▶김창성(종교) ▶장동원(문화) ▶이관식(교육) ▶이미숙(문화) ▶이보용(교육) ▶김광우(문화) ▶정기용(교육)